

그곳에도

사람은 살고 있었다 (1)



글 부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원장 전용문(소설가)

인도에는 브래드 피트가 째 쳐먹어도 좋을 만큼 우라지계 잘생긴 젊은이들이 호텔 웨이터로 득실거린다. 그 잘생긴 미남들로부터 서비스 한 번 받아보겠다고 비만한 한국 아줌마들이 눈을 치켜뜨고 있다. 호텔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서면 자칭 사도라는 말라깽이들이 얇은 천 하나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반라의 상태로 구걸을 하고 있다.

영화로웠던 옛 왕궁은 먼지 속에 그냥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어도 보수는커녕 청소조차 제대로 못 하는 형편에 그 옆에는 최신식 빌딩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 고대와 현대가 절묘하게 공존하며 아무 불평 없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인도 북부지방의 여행은 세 개의 정점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수도인 델리, 세계 최고의 건축물인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 그리고 산정에 핑크 빛 암베르 성을 코끼리를 타고 둘러보는 자이푸르. 이 세 곳을 연결시키면 삼각형의 황금의 관광벨트로 묶인다. 인도를 찾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세 곳만은 꼭 둘러본다.

인도 여행을 함께 한 사람은 모두 11명이었다. 그중 5명은 전라도 지방의 중학교 여선생들로, 단체로 참여하였는데 나이는 대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르고 있었다. 그녀들은 2년 동안 적금을 들어 여행 경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다른 여행객들에 비해 상당히 분명한 편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다섯 명이나 되는 단체의 울이 버팀목이 되어 어지간한 체면이나 염치 같은 것은 무시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녀들은 출발 전 인천 공항에서부터 다른 일행들을 압도하며 여행객들의 전면에서 단번에 눈에 들어왔다. 들뜬 목소리로 동료들 부르거나 사소한 일에도 깔깔거리며 웃거나, 끝없이 전화질을 해대는 게 마치 여고생들의 수학여행 풍경을 떠올리게 했다.

다른 일행 중 제주도에 살고 있는 40대의 자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도통 말이 없어 그 지방의 돌하르방을 연상시켰다. 또 다른 일행 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녀들은 평범한 50대 초반의 여행객들이었는데 여행 내내 쇼핑에 열을 올렸던 사람들이었다. 인도에서 무슨 물건을 살 게 있었는지는 몰라도 면세점이나 백화점에 들르게 되면 약속 시간보다 꼭 30분쯤 늦게야 나타났다.

박해현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일찍 밝힌 50대 초반의 남자 동행인이 있었다. 그도 나처럼 혼자서 인도 여행길에 올라 우리와 동행이 된 사람이다. 그는 여행 내내 자신이 뭘 하는지 좀처럼 신분을 밝히지 않은 미스터리인 사나이였는데, 우리 일행 중 남자라고는 그이와 나 둘뿐이었으므로 여행이 끝날 때까지 나와 같은 방을 사용한 룸메이트였다. 박해현 씨는 여행에 대한 호기심은 많았지만 천성이 태평이라 모든 걸 자신이 편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 편했다.

그는 잠자리에 들면 5분도 채 안 되어 코를 골며 잠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나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한테는 참으로 부러운 습성이었다. 쉽게 잠이 들고 숙면을 취한 탓인지 그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호텔 내 사우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세면을 일찍 끝내고 호텔 주변을 산책하다가 아침시간에 맞추어 되돌아 왔다. 그는 화장실 사용도 간편하고 빨리 처리를 하는 통에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언제나 화장실이 비어 있어 참 고맙기도 했다. 나한테는 참으로 좋은 조건을 지닌 동행자였지만 대체로 말이 없을뿐더러 그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가 뭘 하는지 혹은 이 지상에는 갈 곳도 볼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열악한 인도 여행을 하게 된 이유 같은 건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 인도에서 무슨 정신적인 해법이라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난 형이상학적인 고뇌파도 아니었다. 언 듯 스쳐가는 말처럼 자신을 잠깐 설명했는데, 그는 영등포에서 철물 도매업에 종사를 하며 동업인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까닭에 쉽게 시간을 낼 수가 있어 여러 곳을 여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저러나 철물 가게 주인이 그 허다한 여행지를 두고 하필이면 인도 여행이라니 자못 놀랄 만도 했다.

그에 못지않게 나 또한 동행한 여행객들에게 미스터리인 인물로 보였을 것이다. 나는 전직 의사다.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싫어 아예 병원을 폐쇄해버리고 혼자 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병원을 운영해서 그동안 돈이라도 많이 벌어들이고 편하게 병원 문을 닫은 것은 결코 아니다. 같이 여행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명퇴한 전직 회사원이라고 간단하게 나를 소개했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설명했다면 그들은 왜 의사 일을 그만 뒀으며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등 쏟아질 질문들이 귀찮아 그냥 간략하게 나를 소개하고 입을 닫아버렸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지켜워 견딜 수가 없어 막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심

정으로 그 일을 작파했다. 모든 결과는 꼭 그것에 부합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앞으로 의사 일을 그만두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개원이 실패했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환자가 보기 싫어서? 종업원들 다루기가 힘들어서? 의료보험 청구가 귀찮아서? 의사들끼리 모이는 걸 싫어하여?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되기도 했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이유가 안 되기도 했다.

나는 그냥 내 직업이 싫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여 어떻게 부언으로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내가 의사 일을 작파하고 무슨 다른 일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둔 것도 없다. 의사로서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이에 그 일을 접는다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낼 것이 분명하다. 나는 그들을 달랠 어떤 변명도 준비하지 않았다. 얼마간 저축해둔 돈이 있어 당분간 생활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이후는? 나도 모른다. 돈이 떨어지면 집을 팔고 전세라도 들어가 살면 되겠지. 꼭 내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거주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 한들 살아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혼자 인도 여행길에 올랐던 것도 그렇게 버리기 of 여행연습이라면 내 이름의 집을 포기해도 별로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산다면 그러저럭 10여 년은 버틸 것이다. 그사이 나는 다른 길을 찾아서, 아니면 달관의 경지에 이르러 아예 집 같은 건 원천적으로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르지 않은가. 인도의 구류를 닮는다면 내 몸 속에 사원과 영혼을 동시에 지니게 될 터인데 집이라든가 가구라든가 하는 물건들은 얼마나 번거로운 걸림돌이 될 것인가. 나는 조금도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지극히 냉담한 마음 상태로 한국을 떠났다.

내가 인도를 방문하고자 했던 진정한 이유는 가슴속에 욕망으로 가득한 수천 개의 돌무덤을 헐어내고, 텅 빈 공간 하나를 가진 가슴을 갖고 싶어서였다. 그것조차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다면 내 소망을 풀길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여행사 직원은 우리가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갈 때 돌아갔다.

-인도에 도착하면 델리 공항에 현지 가이드가 나옵니다. 한국인이니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즐거운 여행을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인도 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사가 영세하여 11명의 여행객을 인솔하고 국내 여행사 직원이 따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 인도에 살고 있는 교포 중에서 자질이 있는 사람을 현지 가이드로 계약을 한 모양이다.

뉴델리 공항에서 우리는 현지 여자 가이드가 들고 있는 여행사 이름이 적힌 팻말

을 발견했다. 그녀는 처녀처럼 긴 머리를 한 40대 초반으로 히피풍의 옷을 입고 안경을 쓴 깡마른 여자였다. 남편은 이곳 힌두대학에서 철학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는 걸로 봐서 결혼을 아주 늦게 한 것 같았다. 아마 그녀도 노처녀로 인도에 건너왔다가 늙은 노총각 철학도와 연애를 하다 결혼에 골인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대는 골초였다. 이곳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귀해 그런 대로 잘 봐준 모양인데 국내에서라면 그녀는 아마 마녀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겠다. 옷차림이나 체형 혹은 풀어놓은 머리카락이 대체로 그러했다. 그러함에도 그녀의 영어는 탁월했다. 우리가 인도를 여행할 때 한국인 가이드인 그녀 외의 인도인 현지 가이드가 한 명 더 붙었는데, 그 인도 가이드가 영어로 하는 설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한국말로 옮겨 재차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다. 인도인 가이드는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바뀌었지만 그녀는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행이었다. 그녀는 설명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퍽퍽퍽 마치 번역어 같은 어투로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일행은 그녀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 외에도 기차표 예매나 좌석 확인, 호텔 숙박 등 우리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을 그녀는 인도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그 가녀린 몸으로 척척해냈다.

우리는 인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단체로 소용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얼마씩 돈을 각출하여 가이드가 그 돈을 관리하였다. 우리가 여행을 끝내고 헤어질 무렵 경비를 결산해보니 돈이 조금 남았다. 우리 일행은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쯤 되는 그 돈을 그녀에게 수고비로 주기로 했는데 그녀는 끝내 그 돈을 받기를 거부하고 11명에게 똑같이 남은 돈을 나눠줬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이곳 인도에서는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그녀의 남편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 신분 아니던가.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결벽증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순수한 제의를 거절하는 그녀의 태도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분배해준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되돌려 받았다.

혹시 모르겠다. 다섯명의 여선생 중 한 사람이 쏟아낸 불평이 아마 그녀가 받아들여질 추가 팁을 거절한 이유가 되었는지도.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하루 전 우리 일행은 사소한 문제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 백화점에 들렀다가 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들의 쇼핑 때문에 시간이 늦었다. 먼저 와 차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선생들이 불평을 쏟아냈다.

- 다음편에 계속 -